글 | 지하식 세무사

당신의 세금은 안녕하십니까?



지하식 세무사

학력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법학석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주요경력
-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 대표(2001-현재)
- 한국생산성본부 세무회계 강사(2006-현재)
- 서울상공회의소 세무상담역 및 세무회계강사(2002-현재)
-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 감사 (2012-현재)
- (사)서울기업경제인협회 감사(2013-현재)
- 서울인쇄조합 세무고문(2013-현재)

e. tax0246@naver.com
m. 010-3350-0246

"사장님의 돈 주머니, 즉 금고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사장님은 어떤 답변을 할까요?

첫 번째의 답변은 이럴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내 금고를 내가 보관하고 내가 관리해야지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난 내가 관리할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다시 틀어서 질문을 합니다.

"사장님은 몹시 바쁘기도 하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어서 해야지요."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의 답변은 이럴 겁니다.

"그렇네요. 그럼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당연히 믿을 만한 직원입니다. 그 믿을 만한 직원은 아무래도 아내나 친척이 좋겠네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믿을 만한 직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친척은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일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겠군요?"

그렇게 해서 사장님은 외부 전문가에게 금고를 맡기고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여야겠네요? 제일 좋은 금고의 관리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첫 번째이지요. 본인입니다. 본인이 시간적 여력 때문에 할 수 없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점검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고 있으면 점검은 필요치 않습니다. 본인이 할 수 없어서 직원이 되었든, 외부 전문가가 되었든 위임하였다면 잘 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점검하지 않는다면 대리인이 금고를 가지고 도망을 가도 모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고라는 용어에 회계 또는 세금이라는 용어를 대입해서 읽어 보십시오. 전문가라는 용어 대신에 사장님이 위임하고 있는 세무사와 회계사를 대입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의 회계와 나의 세금은 안녕하냐고 전문가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점검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위임한 것 맞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위임한 것 맞습니다. 내가 위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잘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것은 과도한 신뢰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믿어야 하지만 문을 통째로 열어놓고 사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 이치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와중에서도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점검입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하기 위해서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물어 볼까요? 예로부터 아는 사람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자 내가 물어 보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장에 관련된 기본적인 회계, 기본적인 부가가치세구조, 기본적인 법인세구조, 기본적인 소득세구조를 알아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번 연재에서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위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물어보아야 할 것의 목록이라도 불러 달라고 하시는 사장님을 위하여 몇 개의 질문 목록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1. 나의 재무제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2. 나의 재무제표에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영업이익율, 이자보상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3. 나의 재무제표가 정부지원사업에 또는 대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제출시 장애가 되는 것은 없느냐?
4. 나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맞느냐?
5. 대손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적정히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처리가 되었는가?
6. 자본은 결손은 아닌가?
7.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장과 매입장은 나에게 보내주는가?
8. 나의 부가가치세에서 매출과 매입에 문제는 없는가? 혹시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되는 것은 없는가?
9.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는 적정한가?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명의전환되어 있는가?
10.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 중에서 공제가능한 것이 적정히 공제되고 있는가?
11. 모닝 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 기름값, 수리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고 있는가?
12. 급여신고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4대보험의 부담 때문에 급여를 과소신고하는 것은 없는가?
13. 비용 중에서 세금의 부담 때문에 가짜로 올라가는 비용은 없는가?
14. 나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적정한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적용받고 있는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제대로 적용받고 있는가?
15. 법인전환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시기는 아닌가?
16. 법인전환 시 영업권은 제대로 계산되었는가?
17. 법인의 경우에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은 없는가?
18. 나가는 비용 중에서 증빙은 제대로 받고 있는가?
19. 지출증빙과 비적격증빙의 구분은 하고 있는가?
20. 1년의 결산이 끝난 후 재무제표와 각종 신고서와 장부는 돌려받고 있는가?

자 이런 것이 사장님이 질문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질문목록을 보면 무슨 내용인 지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연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재가 끝나면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번 연재에서는 소공인 인쇄업체 세무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일 중에서 세무사에게 질문하지 않아서 안녕하지 못한 세금이야기를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시작합니다.

초점은 "질문하라"입니다. 내 세금이 안녕한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최소한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번에는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인쇄업체가 꼭 알아야 하는 기초가 되는 세무와 회계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